

조각가 박종민씨는 주로 대리석을 사용해 소박한 여체와 불상을 조각해 왔다.



투박함 속의 아름다움

불상과 여체의 독특한 만남 눈길

조각가 박종민씨가 '불상과 여체'라는 독특한 주제로 6월 7~27일 서울 가회동 북촌미술관에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다. 1995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일곱 번째인 이번 개인전은 여체 조각을 주로 선보였던 과거와는 달리 불상과 여체의 만남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대리석의 특성을 살려 투박하면서도 거친 돌을 따스하고 온화하게 살려낸 박종민씨의 작품들은 깨달음과 불상으로 대변되는 피안(彼岸)과 아름다움의 대명사 여체로 대표되는 차안(此岸)의 만남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연꽃을 든 관음보살입상' '시무외인 아미타여래입상' '합장 관음보살입상' '선정인 여래입상' '석가모니 좌상' '삼매 속의 보살좌상' 등의 불상들과 '봄봄' '문득' '하늘아' '수줍음' '기다림' '순이' 등 전통적인 소박함을 드러내는 여체들이 나란히 선보인다.

부드럽고 색다른 여체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외르르 무너진다. 그가 만드는 여체는 투박하다. 거칠고 딱딱하면서도 표정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 불상 역시 다르지 않다. 평평하고 네모난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수인을 하는 부처에서부터 연꽃을 고이 들고 서 있는 관음보살에 이르기까지 투박함 속에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 회화과)는 "그동안 여체 조각으로 일가를 이루었던 박종민이 근래 불상에 몰입하고 있다"며 "돌을 뉘는다는 일념으로 돌을 깎아 작업한 작품들인 만큼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직설적 비교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궁금하다"고 평가했다. (02)741-2296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박종민 조각展 '불상과 여체'

서울 북촌미술관, 27일까지

禪 바탕에 강렬한 색의 조화

김상수 사진展 '도시의 색...'

서울 공근해갤러리, 7월 16일까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과 도쿄 그리고 파리에서 사물과 이미지들의 한 부분을 근접 촬영해 최상의 색감을 표현한 이가 있다. 미니멀한 형태 속에서 강렬한 색상과 추상적인 단면을 드러내는 작품들. 사물의 색과 빛에 초점을 둔 이 사진은 보는 이에게 색의 파장에서 울려 나오는 에너지에 몰입하게 만드는 회화성까지 띄고 있다.

작품 앞에서 사진인가, 회화인가 가우뚱하게 만드는 김상수씨의 사진전 '도시의 색(色)-서울 도쿄 파리' 전이 6월 8일~7월 16일 서울 팔판동 공근해갤러리에서 열린다.

갤러리를 잠시 엿보자. 파리의 사진들은 예술의 도시다운 다채로운 원색과 파스텔 톤을 다양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과 도쿄의 사진은 그 바탕에 선(禪)사상에 뿌리를 둔 동양철학이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무채색 계열의 사진들과 이에 상반되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역동성이 담긴 원색 계열의 사진들이 함께 어우러진다.

김상수씨는 "서울은 검은 돌의 기운과 파란색 기운이 수평으로 떠도는 느낌, 도쿄는 소독약 냄새가 나는 흰색으로 둘러싸인 컬러, 파리는 오래된 향수 냄새가 나는 보라색과 연회색이 푸른 기운을 띄고 있는 느낌"이라고 정의 내린다. 이번 전시는 김상수씨가 바라본 세 도시의 색을 공감해보는 기회다.



김상수 작 '2006 Tokyo'.

일본의 건축가 시게루 우치다는 그의 사진을 "선(禪)의 사진"이라 했고 <갈의 노래>의 소설가 김훈씨는 "아름다운 추상 회화"라고 평했다.

얼아홉 살에 연극 '환'을 직접 쓰고 연출해 예술계에 입문한 그는 대중상 각본상을 수상한 '학생부군신위' 다큐멘터리 '만해 한용운' 등의 대본 집필, 설치미술전, <파리의 투인 두영> 사진 산문집 발간 등 연극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설치·조형미술 등 다양한 예술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김상수씨의 도시 사진들을 통해 그가 주장해온 '예술자업을 통해 인간과 자연, 삼라만상의 관계, 일상의 구체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건들에 어떻게 진정성을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자. (02)736-7776 강지연 기자

12지신의 난타와 춤

사람도 아라한도 '신명'

'배달겨레와 부처놀이' 국립극장 달오름

취 효량이 웅 등 십이지신들이 신나는 난타무로 시선을 휘어잡는다. 명지중학교 학생들이 선보이는 십이지신들의 난타무 '십이지나희'로 시작해 '뫼뫼-뫼뫼'로 회화하는 '배달겨레 부처놀이'는 6월 22~23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인다.

법사회(이사장 목정배) 부설 한국불교문화예술연구소(소장 방추)의 범라무군(Bodhisattva Dancing Troupe) 불교무용단이 명지중 세명컴퓨터고 학생들과 함께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난타무는 전통의 맥을 담은 범고무로 변화하고, 목정배 작시 박범준(중앙대 총장) 작곡의 찬불가는 방추 스님(범라무군 불교무용단 단장이) 안무한 창작 바라나비춤 '미륵님 오시네'로 화려한 손짓을 펼친다.

북 장구 팽과리 징의 사물과 종 운판 목어 범고의 사물이 만나 흥겨운 율림을 연출해내는 '사물과 범사물의 만남',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도라산타령' 전통화관무의 안무를 응용해 부처님께 올리는 범천과 나한의 춤으로 꾸민 '화관무'가 이어진다.

이번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통발극 형태로 탈바꿈한 '회심곡', 창작찬불가와 나비춤 바라춤이 만난 '천둥소리와 연잎바람'이 이어진다.

'회심곡'은 전체 일곱 마당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마당을 총 3부로 꾸몄다. 창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이 병들고 죽어 저승의 심판을 거쳐 극락으로 가는 과정이 무대극으로 펼쳐진다. 나비춤과 바라춤이 마당극 형태로 변신하기도 한다.

'천둥소리와 연잎바람'은 현대무용의 형식을 많이 가미해 볼거리가 풍성하다. '뫼뫼가 뫼뫼' 마당에서는 원효스님의 무애춤을 이어받아 불교를 민중 속으로 회화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02)2554-1671 강지연 기자

고은·도종환 시인 신작 선보여

고은 시인의 신작시 특집과 도종환 시인의 신작 소시집이 실린 <불교문예> 여름호가 나왔다.

'신수유포 판 남' '숨' '낙엽' '빈방' 등 5편에 달하는 고은 시인의 신작시를 선보였다. 고은 시인의 이번 시는 "선적 발상과 호방한 정서가 서로 융합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뒤집기 상상력이 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공광규 시인의 시평이 따라 붙었다.

도종환 시인은 '처처불상' '폐사지' 등 5편의 신작시를 선보였다. 문학평론가 이상혁씨는 "이번 도종환 시인의 신작은 세상으로 귀환한 시인이 자신의 망명정부인 산사를 무너뜨리면서 귀환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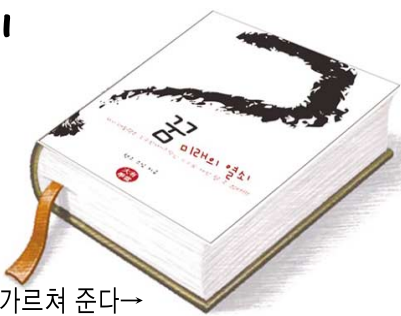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한국 선시와 현대시의 회통'을 주제로 '선시의 수사법과 현대시' '현대시의 선적 상상력, 그 현실과 문제' 등을 다룬 기획특집이 눈길을 끈다. 현대불교문학상당선작 특집도 담겼다. (02)308-9520 강지연 기자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꿈! 미래의 열쇠

꿈의 내용을 물어 질병의 원인을 알고, 환자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어떤 일에 대해 고민한다→
우리 몸에 잠재한 초능력이 꿈을 통해 가르쳐 준다→
그 가르침을 잘 해석하여 슬기롭게 미래를 풀어나간다
다만, ① 우리 몸에 잠재한 유전자,
혹은 전생의 기억에 남아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므로
자칫 틀리게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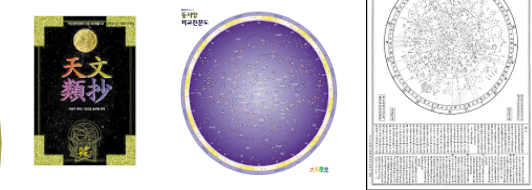
—꿈의 해석원리를 유식이론에 의해 밝히고
꿈풀이 항목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를 적어 놓은 책
이 한권이면 나도 꿈 해몽의 전문가!

꿈! 미래의 열쇠/ 현오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 512쪽/ 20000원

생활활용 CD

CD성명학 2만원 / CD하락이수 30만원
CD자미두수 40만원 / CD육임 10만원
CD기문둔갑 1만4천원

천문 태음천문도 6만원
전정판 천문류초 2만원



음 그림으로 풀 천수경

천수경은 80여 불보살님들의
진실한 수행과 위신력을 표현한 글이다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황금실로 수놓아
불보살의 친견과 선과의 힘으로 소원을 빌면서
비밀리 존중되었던 그림 천수경
그 진실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 권만 빌사해서 전파해도 부처되는 공덕!
그냥 천수경만 외워도 10약을 면한다는데
공덕을 쌓아 실천하는 불보살님들을 천견하듯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면 그 공덕이 어찌 되겠소?
그림 천수경을 가까운 친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복덕과 마음의 평화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음 그림천수경/ 대명스님 엮음/ 신국판 양장/ 337쪽 / 12000원

